

가족구조에 따른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정운 · 이경화[†]
(반산초등학교 · [†]부경대학교)

Influences of Children's Perception of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on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Family Structure

Jeong-Oun LEE · Kyeong-Hwa LEE[†]
(Bansan Elementary School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ego-resilience, family strength,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family structure. 303 cases of them were selected from 912 elementary students' data in Busan and analyzed using the independent-samples t-test,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children of parents family had positive perception on the ego-resilience, family strength,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an children of nontraditional family. Second, in children with parents family, family strength is a more powerful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an ego-resilience. Finally, in children with nontraditional family, ego-resilience is a more powerful predictor of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than family strength. The results implicated that ego-resilience and family strength of children influence on their school life satisfac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family structure and therefore it needed for family structure-based mediation program to improve children' school life.

Key words : Ego-resilience, Family strength, School life satisfaction

I. 서론

학교는 아동들이 가정에서 경험한 인간관계를 사회로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공적 관문이다. 교사와 친구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 교과활동, 계발활동, 기타행사 활동 등에서 아동이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교사나 친구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 즉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의 삶과 건전한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동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일차적으로는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학교의 물리적 환경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496, khlee@pknu.ac.kr

학교변인 외에도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과 아동의 가정환경 배경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 있는 아동의 개인내적 요인으로 아동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이라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당면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행동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좌절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동참하며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사회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극복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중요 요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아탄력적인 아동은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정미현, 2003; Klohnen, 1996; Rutter, 1987). 또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학업에 있어서 지적인 성취도가 높고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으며(고민숙 2002),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한다(구자은, 2000)는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인 요소로서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 배경으로 가족구성원의 구성형태, 즉 가족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 즉 양친가족뿐 아니라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한부모가족, 조부모와 손자녀세대의 조손가족, 자녀세대 없이 부부만 거주하는 부부가족을 비롯하여 1인 가족, 노인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구조 형태가 등장하고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계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2009년을 기준하여 볼 때, 인구 천 명당 124명이 이혼하였으며, 2008년 이혼한 부부의 54.0%

인 6만 3천 쌍에게는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었다. 이러한 미성년 자녀는 10만 2천 7백 명으로, 부모 이혼으로 인해 자녀는 비양친가족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으로(통계청, 월간인구동향, 2010. 3. 29), 오늘날 비양친의 가족구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부모의 이혼 등의 사유로 인해 한부모나 조부모와 동거하는 비양친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겪는 여러 가지 사회 적응의 문제는 여러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다(이혜승, 2004; 정명숙, 2009; 정용주, 2007; 최은미, 2007; Hilton & Desrochers, 2002). 특히 양친가족 구조의 아동과 비양친 가족 구조의 아동 간에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옥선·오윤자·최명구, 2006)를 재고해 볼 때, 가족구조를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족구조적 변인뿐 아니라 최근에는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적 변인으로서 가족의 건강성과 같은 가족환경 요인 또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가족의 건강성이 높다는 의미, 즉 건강한 가족이란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가족 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부모의 갈등이 높을수록 학생의 학교에서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부적응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보고한 정선미와 조옥귀(2009)의 연구를 고려해 볼 때, 가족건강성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로는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2005)의 연구와 빈곤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성희(2009)의 연구 등 소수가 있을 뿐으로,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과 가족구조 및 가족건강성과 같은 가족환경 변인을 학교생활만족도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며, 일부 연구들(김옥선 등, 2005; 이성휘, 2009; 정선미, 조옥귀, 2009)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심을 가지거나, 양친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각각의 변인들을 학교생활만족도와 독립적으로 단순상관을 검증하는 형태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를 지닌다. 즉 자아탄력성과 가족구조 및 가족의 건강성과 같은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가족구조 즉, 양친가족의 아동과 비양친가족의 아동 간에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그리고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관련 있는 아동의 개인 내적 변인과 가족환경 변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실천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데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고찰

1. 학교생활만족도

학교는 가정에서 사회로 아동의 생활범위를 확대하는 곳이며, 아동이 교사 및 친구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인 장이다. 또한 학생으로서 학업성취의 핵심적 목적을 가지고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은 학교에 대한 적응, 인간관계, 교육과정 및 과목에 따른 시험 및 과제 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공식적 장소이기도 한다. 아동 삶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은 아동기의 건강한 발달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거나(장성화·오은정, 2009; Bean & Bradly, 1986) 인지적인 측면(Okun & Weir, 1990)을 강조하는 등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고려하는 맥락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정의된다. 조한숙(2010)은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학교라는 심리적, 물리적 공간 안에서 교사와 아동, 아동과 아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겪게 되는 의도적, 비의도적 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면서 느끼는 기쁨, 성취, 욕구충족의 정도’라고 학교생활만족도를 정의한 바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학교생활의 가장 중요한 경험 대상인 학교환경, 학업, 교사 및 교우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조미숙, 2003).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주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한 형태가 주를 이루는데,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김수영, 2000), 역할놀이중심 집단상담(김정자, 2001), 칭찬프로그램(성미옥, 2003) 등의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그 예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아동의 학교생활 내에서의 경험에 중점을 두고 중재를 통해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교생활만족도는 초등학교생의 전체 삶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다. 따라서 학교의 환경적 변인 외

에도 아동의 내면적 심리상태나 아동의 일차적 사회인 가정의 환경적 변인을 포함하여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당면한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행동하는데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좌절을 느끼지 않고 긍정적으로 동참하며 융통성 있고 효율적으로 적응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Block & Kremen, 1996).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좁은 의미로 개인의 감정차원을 조절하고 상황과 환경적 수반을 변화시키는 적응적 자원이며, 넓은 의미로는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대해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자기효능감과 자기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자아상이 긍정적이며,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정미현, 2003; Rutter, 1987; Klohnen, 1996). 또한 학업성취도가 높고 집이나 학교 등에서 사회적 지지를 쉽게 얻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민숙 2002).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대부분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정화·전윤숙·김인경, 2007), 특히 스트레스나 적응과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김교현, 권선중, 심미영(2005)은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들이 시험스트레스 및 소화기 증상, 두통, 불면증 등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더 적게 경험한다고 보고한 바 있고, 임상희(2005)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부모, 학교, 친구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경험했을 때, 적극적이며 사회지지를 추구하는 대처행동을 보임으로써 보다 긍정적이며 유연한 대처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자아탄력성은 사회적 적응과도 정적 상관이 보

고되고 있는데(김유진·김영희, 2009),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적응을 관련지은 구자은(2000)의 연구도 그 예이다. 그리고 자아탄력성이 신체적 학대 및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수준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밝혀진 바 있어(한경은, 2005), 자아탄력성이 위험요소의 직접적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보호요소로 가족의 위험 요인들과 적응 수준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의 사회·정서적 적응요소인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삶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학교생활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한편, 여성한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또래관계의 매개변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이 갖는 영향력을 검증한 석주영과 박인전(2009)의 연구 외에는 가족구조와 같은 가족환경적 측면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고찰한 시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가족의 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자아탄력성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가족구조 및 가족건강성

현대사회 한국가족의 가장 특징적인 측면으로는 가족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 가족의 구조적 변화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가족화를 의미하는 가족규모의 축소이고, 둘째,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이행되는 가족 세대의 단순화이며, 셋째, 한부모가족, 노인 가족, 독신가족(1인 가족)등의 비정형적인 가족형태의 출현을 들 수 있다(백진아, 2009).

일반적으로 가족구조는 부부를 중핵으로 그 근친인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부부가 다 있는 경우를 양친가족이라 하고, 부모의 한쪽 또는 양쪽이 사망하거나 이혼, 별거,

미혼모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며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비양친가족’으로 정의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비양친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가족구조의 변화라는 특성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족관련 개념으로 가족건강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가족건강성의 개념은 건강가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건강가족이란 가족들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의사소통, 의사결정과정, 스트레스 대처방안)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친족·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생활해 가는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건강가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모델이 국내외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학자들마다 건강한 가족을 ‘강한 가족’(Otto, 1962, 1975) ‘기능적 가족’(Bloom, 1985), ‘균형된 가족’(Olson, Russell, & Sprenkle, 1979), ‘정상적인 가족’(Walsh, 1993), ‘건강한 가족’(Curran, 1983) 등 여러 가지 용어로 정의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어은주와 유영주(1997), 유영주(2004), 허봉렬(1996) 등이 한국사회의 건강가족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 Otto(1962)는 “공유하고 있는 믿음, 종교와 도덕적 가치들”, “서로에 대한 신뢰”, “공유하고 있는 가족 전통”, “사람들을 좋아함” 등을 강한 가족의 특성이라 제시한 바 있으며, Olson 등(1979)은 가족 행동의 두 가지 측면인 응집력(cohesion)과 적응력(flexibility)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족건강성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 어은주와 유영주(1997)는 대화가 있는 가정, 화목한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 가족관계가 원만한 가정, 부모를 공경하고 우애 있는 가정, 친척 관계가 원만한 가정으로 개념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실증적

조사를 통해 유영주(2004)는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가족원에 대한 존중’, ‘유대의식’, ‘감사와 애정·정서’, ‘긍정적인 의사소통’, ‘가치관·목표 공유’, ‘역할 충실’, ‘문제해결능력’, ‘경제적 안정’, ‘사회와의 유대’의 9개 하위요인과 그에 해당하는 68개 문항을 제시하였다.

오늘날 한국가족의 구조적 특성의 변화와 가족의 심리적 과정변인인 가족건강성은 아동의 가정에서의 삶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양친과 비양친의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나아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이러한 가족구조 및 가족건강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아동의 개인내적 변인과 더불어 검증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교육청이 지정한 학교의 급지와 규모를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소재 초등학교 4개교를 임의 추출하여 해당 학교의 5학년(562명), 6학년(346명) 재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940명에게 배부하였으며 회수된 자료 중 부적절한 응답을 한 사례를 제외한 912부가 분석에 포함되었다(회수율 92%).

응답 아동의 성별 구성 현황은 남학생이 479명(52.5%), 여학생이 433명(47.5%)이었다. 이러한 응답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족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양친가족(부자가족, 모자가족, 조부모가족)의 아동은 134명이었고 양친가족의 아동이 778명으로, 비양친가족의 아동에 비해 양친가족의 아동이 약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한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의 통계적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SPSS 14.0 프로그램의 ‘무작위 사례추출기능’을 이용하여 양친가족

의 아동 중 약 20%를 추출하였다. 다음 <표 1>은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포함된 분석대상의 가족구조 및 성별 현황이다.

<표 1> 분석대상 현황 (n=303)

변인	성별		계
	남	여	
양친 가족	98 (32.3%)	71 (23.4%)	169 (55.8%)
비양친 가족	68 (22.4%)	66 (21.8%)	134 (44.2%)
계	166 (54.8%)	137 (45.2%)	303 (100%)

2. 연구도구

1) 학교생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최상미(2003)가 사용했던 학교생활만족도 척도로써 양친가족과 비양친가족의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나는 학교에서 반 친구들과 잘 어울려 생활하는 편이다’, ‘우리 학교에는 존경할 선생님이 계신다’, ‘공부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대체로 흥미있고 유익하다’와 같이 교우관계, 교사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학교행사 등을 측정하는 15개의 문항으로 척도는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의 형태로 제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는 .889로 산출되어, 문항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아탄력성

양친가족과 비양친가족의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적응 유연성 척도(Ego Resiliency Scale)를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200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나는 새롭고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와 같이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나 자신감, 자기 수용 등을 측정하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는 .859로 나타나 문항의 신뢰도는 비교적 양호하였다.

3) 가족건강성

본 연구는 유영주(2004)가 개발한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를 김옥선, 오윤자, 최명구(2005)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원래의 척도는 총 6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김옥선 등(2005)이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고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된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8개의 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우리 가족은 서로 신뢰한다’,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우리 가족은 함께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와 같이 가족의 유대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 정서적인 편안함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 a)는 .942로 산출되어 문항의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에 따른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와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아동의 성 및 학년에 따른 측정변수의 기술통계치(M, SD)를 산출하고 독립표본 t-검증을 통해 전체적인 측정치

의 분포를 예비분석함으로써 성별 및 학년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라서는 먼저, 양친가족의 아동과 비양친가족의 아동들 간에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양친가족의 아동과 비양친가족의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학교생활만족도,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간의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학교생활만족도를 목적변수로 두고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을 투입변수로 설정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변수의 점수분포

아동의 성 및 학년에 따라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점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성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 (n=303)

변인		M	SD	t
자아탄력성	남	53.06	8.97	1.72
	여	51.33	8.14	
	계	52.27	8.67	
가족건강성	남	71.52	12.49	0.84
	여	70.30	12.29	
	계	71.03	12.36	
학교생활만족도	남	55.26	10.45	-0.92
	여	56.31	8.41	
	계	55.73	9.61	

<표 2>에서 보듯이, 자아탄력성은 남아(M=53.06, SD=8.97)가 여아(M=51.33, SD=8.14)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차이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t=1.72, p>.05$). 가족건강성의 경우에도 남아(M=71.52, SD=12.49)가 여아(M=70.30, SD=12.29)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84, p>.05$). 학교생활만족도는 여아(M=56.31, SD=8.41)가 남아(M=55.26, SD=10.45)에 비해 다소 긍정적이었으나,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t=-0.92, p>.05$). 즉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에서 남아와 여아 간의 성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학년별에 따른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 (n=303)

변인		M	SD	t
자아탄력성	5학년	52.00	8.78	-0.70
	6학년	52.74	8.47	
	계	52.27	8.67	
가족건강성	5학년	70.99	12.50	0.03
	6학년	70.95	12.36	
	계	71.03	12.36	
학교생활만족도	5학년	56.23	9.37	0.97
	6학년	55.07	10.06	
	계	55.73	9.61	

<표 3>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6학년(M=52.74, SD=8.47)이 5학년(M=52.00, SD=8.78)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t=-.70, p>.05$), 가족건강성은 5학년(M=70.99, SD=12.50)과 6학년(M=70.95, SD=12.36)의 측정치가 비슷하고 그 차이도 유의미하지 않았다($t=.03, p>.05$). 학교생활만족도는 5학년(M=56.23, SD=9.37)이 6학년(M=55.07, SD=10.06)에 비해 다소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지만, 그 차이 또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다($t=.97, p>.05$). 즉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 5학년과 6학년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종합해 보면, 아동의 자아탄력성이나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에 있어 성이나

학년은 유의미한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족구조에 따른 자아탄력성 및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n=303)

변인		M	SD	t
자아탄력성	양친가족	53.73	8.80	3.09***
	비양친가족	50.63	8.09	
가족건강성	양친가족	73.46	12.08	3.76***
	비양친가족	68.10	12.16	
학교생활만족도	양친가족	57.74	9.49	3.87***
	비양친가족	53.44	9.35	

*** p<.001

<표 4>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양친가족의 아동이 비양친가족의 아동에 비해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아탄력성(t=3.09, p<.001)과 가족건강성(t=3.76, p<.001), 학교생활만족도(t=3.09, p<.001)에서 모두 가족구조에 따라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구조가 아동의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유의미한 변인이며, 양친가족의 아동이 비양친가족의 아동에 비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생활에 대해 더욱

3.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

1) 양친가족의 아동

양친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상관계수는 r=.67(p<.001)로 나타났고,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상관계수는 r=.75 (p<.001)로 산출되어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친가족의 아동은 자신의 자아탄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리고 가족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양친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 따르면, 양친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했을 때,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이 산출되었다.

양친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족건강성이 56%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자아탄력성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은 7% 증가하여 총 63%의 설명력을 산출되었다. 즉 양친가족 아동이 지각하는 학생

<표 5> 양친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영향

단계	모형	B	β	t	R	Adjust R ²	R ² 변화량	F
1	(상수)	14.840		4.67	.75	.56		187.61***
	가족건강성	.584	.748	13.70				
2	(상수)	7.748		2.41	.80	.63	.07	124.94***
	가족건강성	.402	.514	7.70				
	자아탄력성	.382	.354	5.29				

*** p<.001

생활만족도에 대해서 아동의 자아탄력성보다는 가족건강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비양친가족의 아동

비양친가족의 경우, 아동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상관계수는 $r=.53(p<.001)$ 으로 나타났고,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는 $r=.57(p<.001)$ 로 나타나 이들 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비양친가족 아동도 양친가족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양친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 따르면, 비양친가족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5% 유의도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했을 때, 자아탄력성, 가족건강성이 순차적으로 투입된 모형이 산출되었다.

비양친가족의 아동의 경우,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자아탄력성이 35%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졌다. 여기에 가족건강성이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은 9% 증가하여 총 44%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양친가족 아동은 양친가

족 아동과는 다르게,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해 가족건강성보다는 자아탄력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들이 지각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고, 가족구조에 따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관련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고, 관련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양친가족의 아동이 비양친가족의 아동에 비하여 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동거가족이 부모해체가족보다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밝힌 이혜경(2008)의 연구나 청소년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지각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를 밝힌 박민주(2006), 김윤경(2008)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가족형태에 따라 학교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고 부모와 형제집단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아동이 한부모와 형제집단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아동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다는 김

<표 6> 비양친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의 영향

단계	모형	B	β	t	R	Adjust R ²	R ² 변화량	F
1	(상수)	18.29		4.152				64.81***
	자아탄력성	.695	.594	8.051	.60	.35		
2	(상수)	11.126		2.491				45.70***
	자아탄력성	.462	.395	4.714	.66	.44	.09	
	가족건강성	.276	.351	4.192				

*** p<.001

옥선(2006)의 연구결과 지지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비양친가족의 아동이 양친가족 아동에 비하여 자아탄력성과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지각이 낮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비양친가족 아동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가족환경적, 학교환경적 차원의 다면적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하겠다.

다음으로, 양친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가족건강성이 자아탄력성보다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비양친가족 아동의 경우에는 자아탄력성이 가족건강성보다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우선순위가 아동의 가족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재고해 볼 때, 초등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양친가족 아동과 비양친가족 아동의 특성에 부합되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자아탄력성보다 가족건강성의 설명력이 더 높았던 양친가족의 아동에게는 사회기술훈련프로그램(김수영, 2000), 역할놀이중심 집단상담(김정자, 2001), 칭찬프로그램(성미옥, 2003)과 같이 아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아동의 가족건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 및 가정교육과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양친가족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의 기술, 의사소통 기술, 가족의 가치체계를 공유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기르며 사회와의 유대관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양친가족 아동의 가족건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부모와의 접촉이 용이한 학교 내에서의 실질적인 부모에 대한 다양한 연수 및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아동과의 대화 방법이나 가족의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

비양친가족의 아동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주어

진 상황에 대한 집중력이나 자신감, 자기수용 등을 위한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더욱 영향을 미치므로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동 자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대처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생활의 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 연구(이경화, 정혜영, 2007)나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훈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이유미, 김정희, 김동원, 2009)에서도 시사 받을 수 있듯이, 아동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이나, 당면한 갈등과 스트레스 중에서 긍정적으로 융통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훈련이 요구된다. 즉 비양친가족 아동의 자아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에 대한 상담과 다양한 훈련 등의 심리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아동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나 자신의 분노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기의 범위를 규정함에 있어 다소 제한적이다. 후속적으로는 다양한 연령층의 아동을 포괄하는 단기중단적 연구설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표집수의 제한으로 인해 여성한부모 가족, 남성한부모 가족과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비양친가족으로 일반화하여 분석하였다. 후속적으로는 다양한 가족구조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세분화하여 비양친가족의 아동 특성과 그에 대한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고민숙(2002). 자아탄력성, 의사결정 유형 및 성패귀인 유형과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자은(2000). 자아탄력성 긍정적 정서 및 사회적 지지와 청소년의 가정생활적응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교현 · 권선중 · 심미영(2005). 초등학생의 시험 스트레스와 신체화 증상:자아탄력성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10(1), 113~126.
- 김수영(2000). 사회기술훈련이 배척받는 아동의 사회적 지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옥선 · 오윤자 · 최명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학회지, 19(3), 761~777.
- 김옥선 · 오윤자 · 최명구(2006).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학회지, 15(1), 195~207.
- 김유진 · 김영희(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123~142.
- 김윤경(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자(2001). 역할놀이중심 집단 상담이 학교생활만족도 증진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주(2006).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진아(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33(1), 204~224.
- 석주영 · 박인전(2009). 빈곤가정 아동의 또래애착과 자아탄력성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 양부모가족과 여성한부모가족 아동의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14(2), 29-50.
- 성미옥(2003).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칭찬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어은주 · 유영주(1997). 한국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유성경 · 홍세희 · 최보운(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효과검증, 교육심리연구, 18(1), 393~408.
- 유영주(2004). 가족강화를 위한 한국형 가족건강성 척도 개발연구, 가족관계학회지, 9(2), 119~151.
- 이경화 · 정혜영(2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8~18.
- 이성휘(2009). 빈곤가정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및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화 · 전윤숙 · 김인경(2007). MMTIC에 의한 성격유형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19(2), 288~300.
- 이유미 · 김정희 · 김동원(2009). 인지적 대인관계 문제해결 훈련이 결손가정 초등학생의 문제해결력, 자기효능감 및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303-2319.
- 이혜경(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승(2004). 부모의 이혼과 양육형태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학교적응, 한국청소년학연구, 11 (1), 407~427.
- 임상희(2005). 아동의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와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성화 · 오은정(2009). 학생들의 휴대폰 중독과 우울, 불안,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21(2), 259~268.
- 정명숙(2009). 가족구조가 아동의 인성발달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미현(2003).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용주(2007). 일반가정아동과 이혼가정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 및 생활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경성대학교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2003). 참만남 집단상담이 초등학교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숙(2010).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정체감 연구, 가톨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상미(2003). 아동이 지각하는 교사문화와 학생의 학교생활만족에 대한 연구, 인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미(2007). 한부모가족 아동의 학교적응 및 그 변인 연구, 성균관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경은(2005). 아동의 학대경험과 자아탄력성이 외상후 스트레스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an, J. P., & Bradly, R. K.(1986). Understanding the satisfaction- performance relationship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 393~412.
- Block, J. H.,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 Bloom, B. L.(1985). A factor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 of family functioning, *The Family Process*, 24, 225~239.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 Winston Press, Ins.
- Hilton, J. M., & Desrochers, S.(2002). Children's behavior problems in single-parent and married-parent families: Development of a Predictive Model, *Journal of divorce & remarriage*, 37(1), 13~36.
- Klohnen, E. C.(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th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Okun, M., & Weir, R. M.(1990). Toward a judgement model of college satisfac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 56-76.
- Olson, D. H. Russell, C. S., & Sprenkle, D. H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Process*, 1, 3~28.
-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 Otto, H. A.(1975) *The use of family strength concept and methods in family life education : A handbook*, Beverly Hills, CA: Holistic Press
- Rutter, M.(1987).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7, 316~331.
- Walsh, F.(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Y: Guildford Press.
-
- 논문접수일 : 2010년 09월 30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10월 23일
2차 - 2010년 11월 26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01일